

사실주의의 재인식*

새로운 문학적 탐구에 기(寄)하여

1

수년에 증명하는 문학적 혼돈의 과정을 지나 최근의 논객들이 재출발의 방향을 탐색하기 비롯하였다는 것은 의의깊은 일이다.

아직 혼돈의 전폭(全幅)을 파악함에 있어 소소한 견해의 차이가 있든가, 또는 방향의 설정에 있어 완전한 일치할 수 없든가, 혹은 부분적인 과오가 따른다든가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혼돈으로부터의 재출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일시적 회생이란 것을 각오치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단을 피하여 토론 가운데 노선을 찾으려 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논의는 피차의 과학적 신중과 높은 협동의

*『동아일보』, 1937.10.8~14.

정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누구를 물론하고 개개의 연구(研究)나 상대자의 부분적 약점에 구애되지 말고 그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논쟁이 가졌던 적년(積年)의 악재(惡害)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출발에 있어 조금씩 방향의 지시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혼돈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처럼 살리려는 방향은 사태의 평가 위에 수립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추리의 결과로 떨어지고 말지 않는가?

예(例)하면 방금 우리가 그것 가운데 재출발의 계기와 노선을 찾으려는 리얼리즘 논의에 있어서도 여태까지의 창작적 비평적 논구(論究)의 결론으로서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실천에서 유리된 공론(公論)으로 끝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¹

사실 리얼리즘이 과학적 이론에 의하여 철지적으로 승인되는 유일의 문학적 경향이라든가, 인식 활동으로서의 문학의 본질이 다시없이 명확하게 표현된 문학적 '이즘'이라든가, 경향문학(傾向文學)²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든가는 반복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나 리얼리즘으로 자기를 관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제창은 이 땅의 경향문학으로선 결코 처음 듣던 부르짖음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으로부터 비롯하여 변증법적 사실주의, 소시

¹ 다분히 있다: '分明한 것이다'(원 발표문).

² '경향문학'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향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문학이란 의미이지만, 당시에서는 카프 진영의 프로문학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특히 1937년 들어서 '프로문학'이란 단어의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를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일제 식민지 당국의 압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리얼리즘 리얼리즘 등등 여러 번째 우리는 리얼리즘론과 헤어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향문학이 리얼리즘과 떠날 수 없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리얼리즘 논의의 변천 과정의 각 단계가 문학적 발전의 복잡한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회와 같이 소시얼리즘적 리얼리즘까지의 각 발전 계단은 조선 경향문학의 사실적 예술로서의 자기 완성의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로 당파적 문학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각 계단이었다.

그러나 소시얼리즘적 리얼리즘의 제창 이래 잡다한 경향의 교류를 통하여 현재의 리얼리즘 논의까지의 과정은 도저히 직선으로 형용할 수는 없다.

이 과정에는 경향문학의 상승운동이 아니라 그 정체, 혼돈, 후퇴의 와상운동이 표현되어 있다.

전술과 같이 소시얼리즘적 리얼리즘은 한 개 자의적 예술인 제창이 아니라 여태까지의 세계문학의 결론으로서 또는 경향문학이 도달한 최고의 일반적 방법으로서 수입되어 문학활동의 통일적 표지로 수립되려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낡은 계단에 대한 자기 비판의 결론으로서, 겸하여는 새로운 출발의 방향으로서 우리들의 일치된 의사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문학활동의 공동형태와 통일적 방향이 상실된 이후 로맨티시즘 혹은 휴머니즘 기타의 대두는 모두가 일치된 의사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서투른 창의 소산이었다.

이 과정에는 통일된 방향의 소실과 혼돈한 암중모색의 제 요소가 명백히 반영되어 있었고 그만큼 각종의 제창에서 일치된 의사의 반영

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자의와 혼돈의 현상은 비단 로맨티시즘, 휴머니즘 논의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실로 금일의 리얼리즘 논의 가운데도 이미 싹트고 있음을 나는 본다.

그렇다고 나는 먼저도 말한 것처럼 각인이 소신을 피력함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각인이 '인민의 문학'을 제창하든지, '고발의 문학'을 주장하든지 또는 무슨 문학을 제안하든지, 그것은 온전히 각인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슨 문학'이 단순히 제창자 일 개인의 방향 선언이 아니라 혼돈 가운데 상실된 일반적 방향을 재건하려는 한, 수도의 비판이나 위태로운 독창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문학적 현실의 철저한 인식과 자기의 소론이 일치되는가 여부를 묻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떤 이론이 보편타당성을 갖는 것은 각인에게 편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의 심오한 파악의 결과인 때문이란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각의 관사 밑에 리얼리즘의 문구가 붙었다고 경솔히 통일적 방향에의 경향이라든가 재출발의 일반적 기초를 찾을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주관, 엉뚱한 관념주의를 리얼리즘 형

3 '고발의 문학'을 제창한 것은 김남천(金南天)이다. 김남천의 「고발의 정신과 작가」(『조선일보』, 1937.6.1~6.5), 「창작방법의 신국면—고발의 문학에 대한 제론」(『조선일보』, 1937.7.10~7.15) 등의 글 참조.

4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이다: '예전에 알려진 事實이 아닌가'(원 발표문).

식 가운데 포장할 수가 있다.

이상⁵ 씨의 순수한 심리주의를 리얼리즘의 심화, 박태원⁶ 씨의 파노라마적인 트리비얼리즘⁵을 리얼리즘의 확대라 선양⁷하던 것과 같은⁶ 리얼리즘론이 대도⁸를 확보하지 않는가?⁷

그러므로 우리는 리얼리즘이란 문구만 있으면 급급히 그 아래 서명해버리는 우거⁸를 감히 할 것이 아니며 또한 리얼리즘에 마음대로 생각나는 문자를 기입하는 경솔도 버려야 한다.

2

우리들이⁸ 상상하는 리얼리즘은 우선 모든 종류의 포복적⁹인 경험론, 그 위에 성장한 소박한 파행적인 리얼리즘으로부터 순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주지와 같이 사물에 대한 관조적 태도로부터 출발하여 현상의 수포¹⁰만을 추종하는 외면적 리얼리즘은 문학의 깊은 인식적 기능을 감쇄¹¹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천적 의의를 불문¹²에 부차함으로 현실에 대하여 완전히 타협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포복하는 파행적 리얼리즘이란 것의 타협적 본질은 무엇보다도 소시얼리즘적 리얼리즘 논의과정 가운데 표명된 박영희¹³ 씨의 견해

⁵ 파노라마적인 트리비얼리즘: '純粹히 形式的인 構造의 小說'(원 발표문).

⁶ 선양하던 것과 같은: '宣揚하는 似而非'(원 발표문).

⁷ 최재서(崔載瑞)의 리얼리즘론을 가리킨다. 최재서는 이상의 '날개'를 리얼리즘의 심화로, 박태원의 '침범중경'을 리얼리즘의 확대라 평가한 바 있다. 최재서, 「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조선일보』, 1936.10.31~11.7 참조.

⁸ 우리들이: 『논리』나 원 발표문 모두 '우리들의'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의 주어 표기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에서 전형적 표현을 얻었다.

연전¹⁴ 『동아일보』 신년호에 발표된 「최근 문예이론의 신진개와 그 경향」을 통하여 박영희 씨는 신창작방법을 경향문학으로부터 일체의 경향성을 방축¹⁵하는 이론을 안출¹⁶하였다.⁸

문학적 진실이란 것은 박씨에 있어서는 마치 생활적 진실의 부정과 같아서 그 뒤에 온 리얼리즘 비평·창작의 기본 경향이었던 단순한 리얼리즘의 선편¹⁷을 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래에 있어서는 그 전의 경향문학의 발전된 형태의 고양¹⁸인 소시얼리즘적 리얼리즘은 과거의 모든 성과를 부정, 파괴하는 도구로서, 소시얼리즘적이란 산 내용을 거세한 채 향수¹⁹된 것이다.

그러므로 리얼리즘은 우리의 현실생활과 문학에 적용하는 구체적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형해적²⁰으로 섭취된 것이다.

이러한 형해로서 사회²¹한 리얼리즘에 이르러 문학은 현실의 철저한 인식과 생활적 과제의 실천이란 높은 기능으로부터 생활 현상의 단순한 기술²²의 지위로 떨어져 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리얼리즘의 섭취에 있어서 소시얼리즘적이란 기본 내용을 거세한 리얼리즘만이 처지게 된 이유로서, 당시 경향문학 자체가 빠졌던 세계관과 내용 편중의 공식에 대한 자기비판의 불충분이란 사정도 불소²³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광봉²⁴의 박씨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불충분의 전형적 표현이 아니었던가?¹⁰

⁸ 1934년 1월에 발표된 박영희의 이 글은 그의 전향 선언문으로 유명하다. 이 글에서 그는 '다만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며 상실한 것은 예술 자신이었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¹⁰ 광봉(八峰)은 김기진(金基鎭)의 호. 광봉은 박영희의 윗 글에 대해 곧바로 「문예시평 - 박군은 무엇을 말했나」(『동아일보』, 1934.1.27~2.6)라는 글을 통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광봉의 비판은 당시 카프의 프로문학의 문제점을 주로 세계관과 이데올

팔방은 새로운 리얼리즘 즉 경향문학의 오류를 자기비판한 고쳐¹¹에서 박씨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전혀 낯은 입장에서 비판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박씨의 비판에 있어 효과적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¹¹ 자신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이곳에 있지 않았다.

자기비판의 철저, 신이론의 충분한 섭취가 완성되기 전에 전¹¹외적인 조건이 우리들의 작가, 비평가들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고 있었다.

정치적 논리적으로는 그러한 리얼리즘론의 오류를 기피하면서도 실천적 심리적으로는 세계관의 퇴거, 포복화한 리얼리즘으로 이끌리고 있었다는 것이 아마 사태의 솔직한 승인일 줄 안다.

그러나 새로운 외적 압력에 대한 경향문학 전반의 대응 태도가 소박¹¹ 리얼리즘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주로 작가들, 디테일의 리얼리티 없이는 문학이 될 수 없는 소설에 종사하고 있던 이들이 이런 경향을 대표했다고 볼 수가 있다.

반대로 디테일의 리얼리티가 불가결의 조건이 아니었던 문학 장르, 주로 시인들은 주관주의, 추상적 낭만주의에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일뜻 보면, 이 두 경향을 시인과 소설가의 기질의 차이라든가 혹은 단순하게, 시인과 작가의 정치적 교양의 차이 등으로 돌리기 쉬우나, 역시 두 개의 문학 장르가 가진 본질적 산물이 아닌가 한다.

로기를 작품화하는 데 대한 작가들의 실력 부족과 카프의 조직적 문예기술자조직과 대중조직 사이의 모순)로 돌리고 있다.

¹¹ 『논리』에는 ‘우리들’로 되어 있으나, 원 발표문에는 ‘우리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의 논제이고, 무엇보다 소시얼리즘적 리얼리즘이 파행적 리얼리즘화한 본질적 계기가 새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대응 태도의 반영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리얼리즘을 파행하는 리얼리즘으로 전화시키는 속에서 작가들은 문학으로부터 세계관이 퇴거하는 사실의 이론적 구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그러라! 그럼으로써 작가들은 특별히 작품 가운데서 무슨 사상을 주장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엔겔스¹² Engels가 규수 작가 하크니스¹³ M. Harkness에게 보낸 짧은 서간이¹² 우리에게 예상치 안 했던 해독을 끼쳤다. 그것은 가소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왕왕 작가의 세계관과도 모순하면서 위력을 발휘하는 리얼리즘이란 것은 결코 문학으로부터 세계관을 거세하고 일상생활의 비속한 표면을 기어 다니는 리얼리즘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리얼리즘은 작가의 그릇된 세계관을 격파할 만큼 현실의 본질에 투철하고 협소한 자의식과 하등의 관계없이 현실이 발전해가는 역사적 대도¹⁴를 조명하려는 작가의 고매한 정신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발자크¹⁴ Balzac적 리얼리즘이란 죽은 현실과 타협하려는 주관에 항¹⁴하여 산 현실의 진정한 내용을, 잠을¹⁴한 현상의 표피¹⁴를 뚫고서 적출¹⁴해 놓은 천재적 방법¹³을 가리키는¹⁴ 이름이다.

포복하는 리얼리즘이 어리석게도 세계관과 현실에 대한 비타협 정

¹² 정치적으로는 왕당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애호하는 귀족계급의 몰락의 필연성을 그려낸 발자크를 두고 리얼리즘의 승리라고 논한 글로서, 엔겔스의 ‘발자크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¹³ 천재적 방법: ‘□古의 天才’(원 발표문).

¹⁴ 원 발표문이나 『논리』에는 ‘가르치는’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의 표기법에 맞게 바로 잡는다.

신의 불각³³을 리얼리즘을 통하여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현실이란 것을 일상적, 신변적 사소사³⁴와 혼동하는 데서 원인하는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무엇이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그리면 문학이 아니냐는 옹졸한 트리비얼리즘을 곧 리얼리즘이라고 고집하는 강한 심장과 소박한 논리를 문학적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경향은 일찍이 안함광³⁵ 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¹⁵ 소시얼리즘적 리얼리즘 수입 후 우리 문단의 기본 색조로서 엄홍섭³⁶ 씨의 작품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그 뒤의 이기영³⁷ 씨를 위시로 한 대소³⁸의 작가를 풍미하고 있다.

이것이 일찍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의 적극성'이란 낯은 표어를 비판한 실천적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도 처참의 도³⁹가 심하다.

물론 일찍이 공식주의에 얽매어 알지도 못하는 영역의 생활을 추상적으로 엮어낸 과거에 비하여 각자가 자기의 경험을 조직하려고 힘쓰며 숙지⁴⁰하는 세계의 형상을 만들려는 노력은, 많은 결함을 수반하면서도 각 작가들로 하여금 독자⁴¹의 양식상 탐구를 조장⁴²하는 원활한 창작적 분위기를 빚어¹⁶ 주었고, 동경⁴³ 문단 같은 곳에는 불소⁴⁴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불행히 우리 문단엔 성과라고 이름지을 만한 작품은 발견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우리가 부르문학이라고 매도하던 작품들에 비하여 새로운 작품이 과연 어느 점에서 구별되는가를 분간⁴⁵할 수 없을 만치 예술상의 질은 저하하였다.

그 중엔 나의 단안⁴⁶이 가혹한 독단⁴⁷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근

¹⁵ 안함광의 「소시얼리즘의 레아리즘 제창 후의 조선문단의 추향」(『조선일보』, 1936.1.3~10)을 가리킨다.

¹⁶ 빛어: 「논리」에는 '빛아'로 되어 있으나, 원 발표문에는 '비자'라 되어 있다.

거가 되리라 생각하는 몇 개의 작품을 나도 잊지 않고 있다.

안함광 씨가¹⁷ 추천한 엄홍섭 씨의 「변전탈출기⁴⁸」나 「승어」,¹⁸ 설야⁴⁹ 씨의 몇 편, 이기영 씨의 소설, 특히 이원조⁵⁰ 씨가¹⁹ 칭찬한 「산모⁵¹」나²⁰ 김용제⁵² 씨가 리얼리즘의 표본처럼 천거한 「백추⁵³」²¹ 등을 들 수가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섹트적²² 한계나 조그만 자존심이란 것을 떠나 경향문학의 역사적 발전, 신리얼리즘이 요구하는 구체적 입장에서 씨 등²³의 작품을 거듭 읽어볼 때 상기²⁴한 제씨²⁵가 내린 판단에 간단하게²³ 서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차등²⁶의 비평이 문학적 평가의 실재에 있어 비상히 기민치 못하고 역사적 전망에 있어 우매하며 한갓 작품의 뒤를 추수하고 있다는 다른 한 개의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엄숙한 사실이 아닌가 한다. 「승어」 등 엄씨의 최량의 소설을 통하여 우리는 경향문학의 이전 수준으로부터의 하등의 전진을 발견할 수 없을뿐더러 사상적 수준에 있어 신경향과 시대의 원시주의²⁷로 퇴화하고 있음을

¹⁷ 역시 원문에는 '안함광氏'로 되어 있으나 수정하였다.

¹⁸ 안함광은 위의 글에서 엄홍섭 작품에 나타나는 소박한 경험주의와 관조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변전탈출기」와 「승어」는 '좋은 작자적 의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¹⁹ 원 발표문이나 「논리」에는 '李源朝氏'로 되어 있으나 수정하였다.

²⁰ 「六月創作評」(『조선일보』, 1937.6.20-25)에서 이원조는 이기영의 「산모」를 두고, 심한 반중 속에서도 작중인물의 휴머니티가 괴악에 이르지 않게 형상화한 점에서 가혹하다고 칭찬하고 있다.

²¹ 김용제는 「문학의 건강성과 퇴폐성」(『조선일보』, 1937.5.19~5.23)에서 '우리 농민문학의 新生面을 보여준 작품, 「리얼리즘문학의 건강성」의 한 예로 이기영의 「蓑秋」를 들고 있으며, 또 「조선문단 상반기 총결산 其 一—농촌 취재와 여성애의 작품」(『동아일보』, 1937.8.8)에서도 이 작품을 「現代의 農村小說의 한 典型을 具象化시킨 作品」이라 평하고 있다.

²² 「논리」에는 「코트」의'이라 되어 있으나, 원 발표문에는 「□트」의'이라 되어 있다.

²³ 원 발표문에서는 이 사이에 '아로레도'가 삽입되어 있다.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퇴화, 정체는 설야 씨의 소설 「태양」, 「임금²⁴」, 「후미끼리」 등 일련의 작품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관조주의와 아울러 낡은 공식주의의 잔재가 혼합되어 있다. 예²⁵하면 소설 「후미끼리」, 「임금」 등에서 노동에 대한 무원칙적 찬미라는 낡은 사상과 아울러 명백히 소시민화하고 있는 주인공의 생활과정, 그가 인민적 성실을 다시 찾고 인간의 생활 속으로 들어간다는 외형만이²⁶ 전²⁷ 사회운동자의 전형적 개성 과정처럼 취급되어 있는 데서 적례²⁸를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우리의 주관이 양심과 성실과를 잃지 않았다고 자부함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게 나락의 구렁으로 이끌러가는 과정이 반대의 관점에서 형상화되어, 작품은 전체로 전도²⁹된 모티브 위에 구성되어 있다.

이 전도 가운데 작자의 양심적 주관은 공식주의로서 나타나고 작품에 그려진 온갖 사실을 표면적으로 긍정하는 데서 작자는 명백히 관조주의자이었다.

이러한 공식주의의 잔재와 관조주의의 결합은 이복명³⁰ 씨의 작품에도 독특히 표현되어 있다.

그밖에 민촌³¹의 「산모」에선 빈곤의 단순한 기술 이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맥추」는 전자의 씨의 가작인 「서화³²」, 「고향」 등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평판³³한 리얼리즘과 형해화³⁴한 공식주의의 모티브 위에 새로운 아무것도 없었다.

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비평가들은 이 작품들을 추천할³⁵ 용기를 얻

²⁴ 외형만이: '外形만으로서'(원 발표문).

²⁵ 원 발표문이나 '논리'에는 '推薦'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맞게 바로잡는다.

었는가?

생각컨대 갈수록 저하해가는 경향문학 가운데서 이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기본간³⁶ 과거의 변명³⁷을 전하고 있었다는 외 다른 것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나 자신도 이러한 상대적 우월을 부정하지 않으나, 그러나 이것은 우리 문학의 전진의 표징³⁸은 아니었다.

단지 정체, 퇴화의 일 음영³⁹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작품의 객관적 특징과 역사적 지위를 무시하고 과거의 변명 하나만을 가지고 추천의 이유를 삼는 데는 현하 문예비평의 명백한 질적 지위가 반영되어⁴⁰ 있음을 지적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비평의 사상적 질의 강하⁴¹, 역사적 전망의 결여, 작가와 독자에 대한 지도적 임무의 포기, 작품에의 무제한적인 추종으로 나타나는 비평 퇴화의 명확한 표징이 아니냐? 비평의 추종주의는 실로 파행적 리얼리즘의 이론적 표현이다.

김남천⁴² 씨가 일찍이 김용제 씨의 「맥추」, 「평을 가리켜⁴³」 관조주의의 이론적 표현이라고 단정한 것은⁴⁴ 비록 극단에 치우쳤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릇됨이 없다고 볼 것이다.

동들이 이러한 창작상의 경향은 일반이론의 영역⁴⁵에도 명백히 자기의 족적을 남기었다.

작금간⁴⁶에 가장 많이 활동한 한식⁴⁷ 씨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²⁶ 반영되어: '表現되어'(원 발표문).

²⁷ 원 발표문이나 '논리'에는 모두 '가르쳐'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맞게 바로잡는다.

²⁸ 김남천이 '비속한 리얼리즘에 의한 문학적 활동을 이론적으로 옹호하고 합리화한 논문'의 예로 김용제의 「문학의 건강성과 퇴색성」을 비판하고 있는 「고발의 장신과 작가」(『조선일보』, 1937.6.1~5)에서이다. 또 김남천은 「최근 평단에서 느낀 바 몇 가지 -5. 주제의 적극성」(『조선일보』, 1937.9.16)에서도 김용제의 「조선문단 상반기 총결산」에 대해, 과거의 카르가 지났으나 이미 청산된 '공식주의의 잔재'라고 평하고 있다.

문학이 당면한 모든 근본적 문제를 일부러 끌아가면서 집요하게 회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²⁹

언어, 감상³⁰, 대중화, 혹은 누구 누구의 위인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도 필요치 않은 것은 없다.

그러나 언어도 감상도 대중화도 역사적 제재도 우리의 문학이³¹ 근본적으로 재건되는 방향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논의에 끝나고 마는 것이다.

차등³²의 제씨³³ 필자도 그 중의 1인이나를 가리켜³⁴ 김용제 씨가 기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은 엄숙히 긍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대체 1년에 수십 편 논문을 쓰고 매일같이 신문 잡지를 대하는 이론가가 인간 탐구, 휴머니즘론 등 우리 문학의 결정적 이해³⁵를 다루는 논쟁에 관광객과 같이 지나감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실천으로부터의 유리! 아니 실천으로부터의 의식적인 도피!

우리들의 이론적 사업은 모름지기 비실천주의를 청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지도적 비평, 문학사, 문예학의 건설.

²⁹ 원시의 「문학의 대중화와 언어 문제」(『조선일보』, 1937.7.2~7.7), 「문학의 형상화와 언어의 확립」(『동아일보』, 1937.7.21~7.24), 「문학상의 역사적 제재」(『조선일보』, 1937. 8.29~9.4), 「역사문학의 재인식」(『동아일보』, 1937.10.3~10.7) 등의 일련의 글을 가리킨다.

³⁰ 원 발표문이나 「논리」에는 모두 「文學의」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의 주어 표기방식으로 수정했다.

³¹ 역시 원문들에는 「가르차」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수정했다.

3

그러나 새로운 고차³⁶의 리얼리즘은³² 비단 파행주의의 청산으로만 발육되는 것은 아니다.

주관주의라는 또 한 개의 강대한 「에니미」가 있다.

만일 파행적 리얼리즘이 사물의 현상과 본질을 혼돈하고 디테일의 진실성과 전형적 사정 중의 전형적 성격이란 본질의 진실성을 차별하지 않고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대신하였다면, 주관주의는 사물의 본질을 현상으로서 표현되는 객관적 사물 속에 현상을 통하여 찾는 대신 작가의 주관 속에서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주관주의의 기원은 역시 우리들로 하여금 신창작이론의³³ 수입 당시로 소급케 한다.

직접적으로 신리얼리즘의³⁴ 관조주의적 섭취에 대한 반발에서 주관주의가 출발하였다는 사실은 지금 주목을 요청하고 싶다.

나는 전술³⁵에서 판봉의 박영희 씨 비평이 낡은 공식주의적 입장을 지양치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직접으로 논쟁적 형태를 띠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관주의의 단초로서의 낭만주의는 심리적으로는 판봉과 박영희 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지양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단순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것, 인식뿐 아니라 의욕과 창조를, 묘사뿐 아니라 판타지·감정·사상·주관을 새로운 리얼리

³² 원 발표문에 따르면 「논리」에는 「의」로 되어 있다.

³³ 「신창작이론」이란 1933년 경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한 사회주의리얼리즘의 이론을 가리킨다.

³⁴ 신리얼리즘 역시 사회주의리얼리즘 수용 이후의 리얼리즘, 곧 사회주의리얼리즘을 의미한다.

즘은 갖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키르포친 V. Y. Kirporin과 와실리에프스키의 로맨티시즘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필자의 「낭만 정신의 현실적 구조」란 논문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낡은 공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또는 관조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설정하려고 하였던 일방³⁵ 가 나는 시의 리얼리티를 고매³⁶한 시대적 로맨티카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던³⁷ 것이다.

이것은 작년 초까지의 나의 이론상 입장으로, 충분한 책임과 아울러 기회를 보아 자기비판할 과제이나, 오류의 출발점은 전기³⁸ 논문의 제목이 말하듯 시적 리얼리티를 현실적 구조 그곳에서 찾는 대신 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규정하려는 역도³⁹된 방법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현재일지라도 나는 김남천 씨와 같이 일체의 로맨티시즘을 부정한다거나 김용제 씨처럼 로맨티시즘 하면 그 개념이 19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간단한 이유로써 복고주의의 낙인을 찍는 데는 철저히 반대하나, 나의 로맨티시즘론이 의도 여하를 물론하고 신리얼리즘으로부터의 주관주의적 일탈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은 지적하기에 인색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면 이러한 과오는 당시 유형적 매너리즘 가운데 빠졌던 시의 상태가 대단히 딱했던 사정과, 현상을 통하여 본질을 적출⁴⁰하는 예술적 인식과정 중에서 주관적 추상, 예술적 상상력 등이 연⁴¹하는 역할에 대하여 명백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데 인⁴²하지 않았는가 한다.

당시에 우리는 엥겔스의 발자크론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관과 예술적 방법, 사상과⁴³ 리얼리즘의 관계에 대하여 명백한 이해를

³⁵ 했던: 「논리」에는 ‘했는’, 원 발표문에는 ‘했는’으로 되어 있다.

³⁶ 예술적 방법, 사상과: 원 발표문에 따른 것이다. 「논리」에서는 ‘방법’이 빠져서 ‘藝術

가졌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요컨대 공식주의를 진실로 높은 입장에서 지양할 준비가 우리들에겐 충분치 못했던 것이다.

4

그러나 우리는³⁷ 자기의 과오를 시대의 죄로 돌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릇된 방법으로 문학의 경향성을 완강히 옹호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원⁴⁴이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함에 불과하다.

아직도 작년에 씌어진 나의 낭만주의론을 반⁴⁵리얼리즘처럼 오인하는 이가 있는 듯하므로 재언⁴⁶하거나와 나는 결코 리얼리즘 대신에 로맨티시즘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³⁸ 관조주의로부터 고차적⁴⁷ 리얼리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일 계기로서 그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과오는 의연히 과오로서, 문학에 있어 주제성의 문제를 낭만주의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 곳에 병인⁴⁸이 있었다.

즉 경향성 자신이 철저한 리얼리즘 그것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하여 부가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리얼리즘과 병행하여 로맨티시즘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본래로 레블루셔널 로맨티시즘은 신리얼리즘의 일 측면, 한 속성, 한 요소에 불과하였고, 그것은 주관의 토로에서가 아니라 객관

的 思想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원 발표문의 것이 타당하다.

³⁷ 우리는: 「논리」(원 발표문).

³⁸ 아니다: 원 발표문에서는 ‘아니라’로 되어 있으며 다음 문장과 이어져 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

적 현실과 우리들의 주체가 실천적으로 교섭하는 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고매한 파토스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낭만주의의 주관주의적 본질은 이 제안이 파급한 영향, 예컨대 김우철³⁹ 씨의 「낭만적 인간 탐조³⁹」라는 논문 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창조적 실천 위에 일층 구체적으로 결과하였다.⁴⁰ ‘마음의 리얼리즘’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의 리얼리즘’은 비평상에 나타날 제 일찍이 백철⁴¹ 씨가 고조⁴²한 것과 같은 극단의 감상주의⁴³, 인상주의의 이념⁴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며, 문예이론으로서선 무이론주의⁴⁵, 불가지론⁴⁶을 지나 풍류설⁴⁷과 같은 복고주의나 기타 모든 종류의 유해한 경향과 결부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주관주의적 일탈이란 파행적 리얼리즘과는 다른, 그러나 본질적으론 동일한, 고차의 리얼리즘으로부터 유리하는 노선의 한 분파라는 것은, 객관적 현실 그것과 예술적·생활적으로 교섭함으로 상실된 자기를 찾고 소시민으로서의 자기를 재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될⁴⁸ 자기를 현실 가운데서 에써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 어느 때까지나 이론과 실천, 이상과 현실의 비극에 관한 비가⁴⁹를 울조리게 된다.

이것은 정⁵⁰히 신낭만주의가 낳은 몇 편의 시가의 내용이 아니었는가?

³⁹ 임화의 원문에는 「浪漫的 人間の 探究」라 되어 있으나 김우철 글의 원제목에 따라 고쳤다. 김우철의 이 글은 「조선중앙일보」, 1936.4.15-4.28에 발표되었으며 「文學의 貧困과 作家 個性 等」이란 부제가 붙어 있다.

⁴⁰ 원 발표문에서는 이곳부터 편집이 잘못되어 총 7단 중 3단의 내용은 5단에, 5단의 내용은 3단에 위치하고 있다. 「논리」에서는 물론 위치가 교정되어 있다.

⁴¹ 긍정될: 원 발표문에는 ‘否定될’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논리」의 ‘긍정될’이 타당하다.

일찍이 우리가 20대에 그리했듯이 여하히 필자나 윤곤강⁵¹ 씨 등의 시편은 의욕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대부분 괴로운 현실 속에서 자꾸만 상실되는 것을 붙잡으려 노력하였음에 불구하고 내성⁵²과 양심 등의 영탄⁵³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요컨대 생활적 실천에서 유리하고 광범한 현실 파악에서 격원⁵⁴되어, 마치 관조주의적 소설이 일상 신변사⁵⁵에 구애되고 있듯이 인텔리의 마음의 노래로 퇴화한 것이다.

한편 주관주의는 백철 씨 등의 인간탐구론, 휴머니즘론 등을 통하여 경향문학에서 공연히 분리하는 유력한 통로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차등⁵⁶의 제설⁵⁷에 있어 주관주의는 극단의 명료성을 가지고 자기를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다.

관조적으로 보아진 현실에서만 아니라 낭만적으로 생각된 경향성으로부터도 떨어져 추상적인 인간 내지 인간성이란 데로 귀착할 것이다.

파행 리얼리즘이 외적 자기로 돌아갔다면 주관주의는 내적 자기로 돌아간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두 개의 경향이 정반대의 선을 걷고 있음에 불구하고, 본질적으론 경향문학의 소시민성에의 굴복이란 한 점으로 환원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5

일찍이 「경험비판론⁵⁸」의 저자⁵⁹가 경제주의의 비판에 있어 테러리즘이 억립⁶⁰된 자연생장성⁶¹ 아래 굴복하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뜻깊은 일구⁴²를 기억할 수가 있다.

“경제주의자는 ‘순 노동자운동’의 자연성장성 앞에, 테러리스트는 열정적 사업을 노동운동에 결부할 줄 모르고 내지는 가능성조차 못보는 인텔리겐차적 분격⁴³의 자연성장성 앞에⁴⁴ 한가지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문학이 하자⁴⁵를 물론하고 목전의 사실⁴⁶적, 내적 위를 포복하고 있다는 단안⁴⁷을 내릴 수가 있지 않을까?

예⁴⁸하면 이기영 씨의 소설 「배낭」, 「도박」, 「인정」을 분석하면 작자는 일상적 현실 앞에 고두⁴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리 인정 등 낡은 윤리 위에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작자는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일상 사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경향의 혼합으로 된⁴⁵ 김남천 씨 작품에서 보는 교묘한 공서⁴⁶에도 두 경향의 일치는 표현되어 있다.

소설 「제퇴선⁴⁷」은 인텔리적 양심, 인도적 감정의 허망을 표현하려고 한 작품이나 결과는 의도에 부합치 않았다.

왜 그러나 하면 그것을 폭로해주는 것은 작자의 윤리관도 아니며, 일 기생도 아니며, 정히 엄숙한 생활 그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자는 주인공의 환상을 짓밟는 생활의 본질에 대하여 중요한 발언을 회피하였다.

이 경향은 「남매」 이후 작자가 빠져 있는 일반적 함정이라고 지적

42 레닌(N. Lenin)을 가리킨. 「경험비판론」은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을 의미함.
43 역립된 자연성장성의: 원 발표문에는 ‘自然生長性的의 正反對의 一面’으로 되어 있는데, ‘一面’은 ‘一面’의 오식일 것이다.
44 이 구절은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3장 4절(경제주의와 테러주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로부터의 인용이다.
45 두 경향의 혼합으로 된: 「潮流의 混合이나(원 발표문).

할 수 있다.

김씨의 지론인 고발문학론도 역설일지 모르나⁴⁶ 관조주의와 주관주의와의 접부⁴⁷가 과도히 교묘한 때문에 딜레마 가운데 고민하지 않는가?

분명히 현대는 작자가 대담히 자기를 주장할 시대다. 관조주의에 항⁴⁸하여!

또한 현대는 분명히 객관적 현실의 반영 위에 작품이 구성될 시대다. 주관주의에 항⁴⁹하여!

그러나 고차의 리얼리즘을 떠나 어떠한 예술적 방법 속에서 양자는 변증법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가?

고발의 문학인가? 인민의 문학인가?

아니다. 만일 여사⁴⁵한 어떤 종류의 중간물로 리얼리즘에의 계기를 삼는다면 그것은 일찍이 낭만주의론이 빠졌던 계기론⁴⁶의 과오를 반복할 것이다.

또한 혹종의 안출물⁴⁷로서 리얼리즘에 대신한다면 리얼리즘에 대한 주관주의적 왜곡을 폭로할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들이 객관적 현실의 반영으로서의 리얼리즘 가운데 표현할 주체성은 일 개인의 국한된 주관인 아니라 현실의 묘사로서의 의식인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성만이 비로소 리얼리즘과 모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체성, 작자의 의식이 어떻게 현실의 반영인지 아닌지를 이는가? 그것은 예술적 생활인 실천을 통해서이다.

일찍이 포이에르바하론의 저자가⁴⁷ 실천으로부터 유리된 사유가 현

46 원 발표문에서는 ‘역설일지 모르나’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

47 칼 맑스(Karl Marx)를 가리킨다.

실적이나 비현실적이냐는 논쟁은 한 개 스킴과 철학적 문제이고 실천만이 차안성⁴⁸을 증명하리라고 말한⁴⁹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생활 그것과 같은 문학을 요구하지 않는가?

정히 한 개의 생활적 실천인 문학 그 가운데서 주체성은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객관적 현실과 통일되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문학처럼 현상의 표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심오한 본질을 제시⁵⁰하는 문학이다.

문학적 진실이란 세부의 진실 외에 정황과 성격의 진실성을 의미하지 않는가?

리얼리즘이란 본래 현상의 표피가 아니라 깊다란 본질을 제시하므로 비로소 현실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은, 과학과 더불어 인간생활에 있어 깊은 실천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얼리즘이란 결코 주관주의자의 무고⁵¹처럼 사회⁵²화한 객관주의가 아니라 객관적 인식에서 비롯하여 실천에 있어 자기를 증명하고 다시 객관적 현실 그것을 개변해가는 주체화의 대규모적 방법을 완성하는⁵³ 문학적 경향이다.

그러나 이런 리얼리즘은 결코 리얼리즘 일반이 아니다. 마치 19세기에 시민적 리얼리즘이 당시의 구체적 리얼리즘이었던 것처럼 소시얼리즘적 리얼리즘 그것이 금일의 유일의 리얼리즘이다.

왜 그러나 하면 이 리얼리즘만이 금일의 현실에 있어 그 주체성이 객관적 현실의 반영과 모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⁴⁸ 칼 맑스의 「포이에르바허에 관한 테제」 2항의 내용이다.

⁴⁹ 완성하는: '提供하는'(원 발표문).

이것은 우리들 소시민 작가에 있어 자기의 한계를 떠나 객관적 현실에의 침잠이란 과정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술적 인식에 있어 추상과 상상력의 작용에 있어 세계관의 압도적 역할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대략 이런 것이 흑종의 작위적 창이나 중간적 리얼리즘⁵⁰을 계기로 해서가 아니라 리얼리즘의 재인식을 통하여 신방향 탐구의 기본 노선을 찾자고 제안하는 이유다.

이 논문은 실로 일개 제안에 불과하다.

⁵⁰ 리얼리즘: 원 발표문에는 “리즘,”이라 되어 있다.